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건 여러분들 마음 한 점에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물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미터든 50미터든 막 날아서 돌에 가서 한참 궁리를 하다가 또 물로 내려가곤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에도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걸쳐서 있다가도 가고 풀섶에 있다가도 다시 내려가고 이러는 수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공부하신 어느 부처님께서 사대의 모든 오온의 근본을 이렇게 내려 보시니까 그렇게 모두 차원이 돼 있고 천차만법으로 광대무변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한번 스르르 돌고 계신데 어느 어류는 나무 끝에 올라서 있고 하나는 돌 위에 있으면서 날개가 달려 있고, 나는데 아주 묘하더랍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슬프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하니까 "사정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저는 수천 년을 물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몸을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아 보고 이렇게 해도 이 모습이 이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스님처럼 그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스님께서는 "알았다." 하시면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닐지언댄 바로 그 몸은 홀연히 벗어나리라." 하시면서 그 어류를, 백상어든 어떠한 어류든 그런 차원에 있는 어류는 바로 동물로, 인간으로 인도하시고 또 차원이 낮은 거는 낮은 것대로 또 걸어 다니게 인도하시고 또 아주 낮은 거는 낮은 것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서 정하시니, 어디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 손 손이, 발 발이 안 닿는 데가 없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요, 내 자리 아님이 없다.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거나, 저기 위대한 스님 또는 위대한 공부하신 스님네들이 계셨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 한자리건만 나로부터, 지구 세상으로부터 전체 위로 대천세계까지 오르고 내리면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닦아서, 여러분과 같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까지, 자기가 자유활동을 할 때까지는 내가 알았다 몰랐다 할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 할 게 없는 거기까지 가보고 나면 또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광대무변한 것입니까.

그러니 그 모두가, 이 물에서 사는 것들도 자기 앞가림들을 그렇게 묘하게 잘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소라들도 몇 종류가 되는데 자기 앞가림을 자기 앞가림대로 합니다. 나는 큰 소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너는 추우니깐 바로 문을 닫는구나.' 그 문을 갖다가 아주 하얀 문으로 싹 가려 버려. 그럼 우리가 추워서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우면 소름이 끼치고 쫙 달라붙고 그 모든 따뜻한 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게 옷을 덥게 입고 하는 그런 우리 동물들의 그 묘법.

그 어류들도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추우면 추운 대로 방어를 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방어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일체 만법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묘합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묘법에 의해서 동심으로서 바로 동생, 공체, 공식화하면서 연쇄적으로 잡아먹히고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생명들이 묘하다기보다도 어떤 때는 '어, 불가사리 같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죠. 자연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자체가 생각을 해 보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거는, 조개 같은 거 이런 것도 피가 흐르는 게 있고, 그것도 상류계급에 있는 거나 차원이 높은 거는 피가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무투명하게 피가 없이, 붉은 피가 없이 그대로 있어요. 조개란 놈도 어떤 거는 내고 들일 수 있는, 맑은 물을 들여가고 헌 물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 정맥 동맥이 순환을 하듯이 그렇게 순환을 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참, 하나를 보면 열을 보고 열을 보면 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해 보면 열 가지를 하게 되고, 열 가지를 해 보게 되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를 가 보게 되면 바로 저기를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질 보게 되면 그것을 또 한 번 검토해 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참, 천하에 일등 가는 이 공부라고 봅니다. 이 천하에 일등 가는 공부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류들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진화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몸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자꾸 인간으로서 화하는데, 인간으로서 그 몸을 벗지 못하고 내 배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한 생명이라고 볼 때, 바로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라 하고 그냥 그저 먹게 되면 먹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착취하고 먹고, 이렇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인의롭게 리듬을 타고…. 강제성을 띄어서 훌쩍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리듬을 타면 스스로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강제적으로 더 뛰어올라가려고 하고 악을 쓰고 악을 낸단 말입니다. 속이 상해서 펄펄 뛰고. 또는 좋으면 좋다고 그냥 야단이고. 왜 그렇게 중도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모를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날까지 불교를 믿어 온 그것이 얼마나 허망했던가 생각을 깊이 하실 겁니다. 무엇이 불교인지, 무엇이 인간의 참도리인지, 무엇이 보람 있고 생동력 있는 삶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분간을 못 하고 나라고 하고 내 거라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망하는 거는 네가 망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모두가 이렇게 탓을 하면서 그 습을 놓지 못해서 이 인간의 탈을 벗지 못하면서 항상 좌천되고, 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좌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한 점의 마음에 의해서, 당신네들을 죽이고 살리는 건 당신네들 마음 한 점에 있다 이거야. 지금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받고 죽을 때가 돼도 그냥 순수하게 먹을 거 다 먹어 가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옷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또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펄펄 뛰고 그냥 옷도 못 입고 구덩이가 파지고, 등이 깨지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이지만 나로 인해서 남이 고통을 그렇게 바치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죠. 나는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이 어딨습니까? 부모가 잘하게 되면 그냥 어느 결에 가는 줄 모르게, 조금 그저 노곤하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사랑할 거 다 하다가 가시면 그 정과 사랑과 깊은 그 인연에 의해서 착도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 지겨운 착을 또 갖게 하고 그 지겨운 마음을 갖게 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게 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러한 지겨운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식들도 고만 죄를 또 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탓입니까, 모두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내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부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리가, 지금 어류 얘길 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치,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입으로 화해서 낳는 거 이것이 천차만별로 돼 있고 그것들이 알을 낳고도 다 잊어버리고 잡아먹히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살 궁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가 하면 또 태로 낳아서 그렇게 잘 이끌어 가는 그런 동물에 가까운 물속의 어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묘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다 가지고 있듯이. 묘기가 있으면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좀 성능이 좋으면 이게 부족하고.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들도, 즉 말하자면 뿔로 대치를 할 수 있는 묘기가 있고 말은 뒷발로다가 그 묘기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보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박쥐란 놈 좀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처럼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과 다리와 발가락이며 머리도 모든 것이, 즉 말하자면 날개에 전부 힘줄처럼, 뼈처럼 다 부착이 돼 가지고 이게 움죽거리면 그냥 나는 거죠. 그것을 산에서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야, 신기하구나, 모두가. 자기방어를 다 해서 저렇게 다닐 수 있고 날 수 있고 길 수 있고, 또는 물에서 사는 물의 사자들은 아주 그 속도가 말도 못 하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천차만별로 너무나 엄청난 세계라고 봅니다.

또 그런 어류들도 때에 따라서 동물에 가까운 그것이 간이라든가 허파라든가 정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동맥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묘합니까,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또는 구절구절이 다 돼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한만히 남의 생명을 앗아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과 뭐가 다릅니까? 그 삶과 아픔과 그 인내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류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던지 모릅니다. 내려다보고 울고, 올려다보고 웃고. 세상에 올려다봐도 그렇고 내려다봐도 그렇고, 세상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라고 할 것도 없이 무엇을 탐내며 무엇을 가져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파도가 쳐도 한 생각도 없이 빈 배 떠 가듯, 일렁일렁 빈 배가 리듬을 타고 가듯이, 리듬을 타고 그저 돌듯이 이렇게 살아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소영영하게 모든 것을 나 아님이 없이 돌보시면서 49년을 길을 인도하셨으니…. 사월 팔일이 다가옵니다마는 사월 팔일만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수없는 나날이지마는 바로 어저께도 지나갔으니, 앞으로의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오늘의 그 거둠 거둠이 길잡이 노릇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길잡이를 했건만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여직까지 지금 현실에 이렇게 살아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삼천 년 전에 돌아가시고 열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월 팔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들이 있고, 이 묘법이 있고, 무한의 능력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부처님이 어딨겠습니까? 부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능력으로 마음의 진화력을 가져서 이날까지 모습이 변하면서 나투면서 옮기면서 돌아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등장을 했고 이 자리에 바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도 기묘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슬프다고 어찌 말을 하겠습니까? 또는 어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돌 뿐입니다. 소소영영하게 돌 뿐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물이 파도가 쳐도 한 생각도 없이 빈 배 떠 가듯,
빈 배가 일렁일렁 리듬을 타고 가듯이
그저 리듬을 타고 이렇게 살아나가라.

※위 법문은 1986년 3월 26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